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

(히브 10,23)

- 고난과 희망 십자가의 길

심홍보 신부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

(히브 10,23)

- 고난과 희망 십자가의 길

머리말	3
십자가의 길 14처	5
십자가의 길 0 가톨릭 기도서	6
십자가의 길 1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히브 10,23)	13
십자가의 길 2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야고 1,22)	25
십자가의 길 3 “여러분이 지닌 희망”(1베드 3,15)	37
십자가의 길 4 “모두 회개하기를”(2베드 3,9)	49
십자가의 길 5 “영원한 생명”(1요한 2,25)	61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며

지난 2014년 사순절에는 성가정을 주제로 십자가의 길을 썼습니다. 재의 수요일 다음 금요일과 성금요일에는 가톨릭 기도서의 십자가의 길을 바쳤고, 사순 제1주간에서 사순 제5주간 금요일까지,

첫 주간은 ‘일반 개인 차원의 주님을 향한 영성의 길목에서’,

둘째 주간은 ‘부모의 은덕을 기리며’,

셋째 주간은 ‘부부의 정을 기리며’,

넷째 주간은 ‘자녀의 꿈을 이루며’,

다섯째 주간은 ‘교회 공동체 차원의 사도직 활동의 여정에서’라는 주제로 성가정 십자가의 길을 써서 바쳤습니다.

사순 시기를 마친 다음 곧바로 2015년에 바칠 십자가의 길의 주제를 몇 개월 동안 계속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10월 교구 사제피정에 들어가 기도를 하면서 불현듯 이번에는 사 복음과 사도행전의 흐름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주간은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마르코 복음의 하느님 나라’를,

둘째 주간은 ‘교회를 주제로 묘사한 마태오 복음의 하늘 나라’를,

셋째 주간은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루카 복음의 하느님 나라’를,

넷째 주간은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요한 복음의 하느님 나라’를,

다섯째 주간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역사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구현하는 초대 교회 공동체의 사도행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썼습니다.

2016년 제주 엠마오 연수를 다녀오면서 한 해 쉬다가, 수색 예수성심 성당에 부임하며 위의 두 십자가의 길을 반복하면서, 2019년 자연스레 바오로 사도의 서간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신 바오로 사도의 열정과 헌신이 ‘믿음 희망 사랑’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를 주님과 교회로 이끌어줍니다.

첫 주간은 ‘로마서의 희망 십자가의 길’을,

둘째 주간은 ‘코린토 전서의 믿음 십자가의 길’을,

셋째 주간은 ‘코린토 전서의 사랑 십자가의 길’을,

넷째 주간은 ‘코린토 후서의 위로 십자가의 길’을,

다섯째 주간은 ‘갈라티아서의 찬미와 영광 십자가의 길’을 썼습니다.

2020년에는 사도 성 바오로의 서간을 따라 ‘평화 위로 감사’라는 주제로 십자가의 길을 그려보았습니다.

첫 주간은 ‘에페소서의 평화 십자가의 길’을,
둘째 주간은 ‘필리피서의 힘과 용기 십자가의 길’을,
셋째 주간은 ‘필리피서의 위로 십자가의 길’을,
넷째 주간은 ‘콜로새서의 용서 십자가의 길’을,
다섯째 주간은 ‘테살로니카 전서의 감사 십자가의 길’을 썼습니다.

2021년에는 전년도에 이어 사도 성 바오로의 서간을 따라 ‘믿음의 사도’라는 주제로 십자가의 길을 그려보았습니다.

첫 주간은 ‘테살로니카 후서의 은총과 평화 십자가의 길’을,
둘째 주간은 ‘티모테오 전서의 믿음의 사도 십자가의 길’을,
셋째 주간은 ‘티모테오 후서의 고난 십자가의 길’을,
넷째 주간은 ‘티토서의 은총 십자가의 길’을,
다섯째 주간은 ‘필레몬서의 형제 십자가의 길’을 썼습니다.

2021년 부활절을 맞아 교구 사제 피정에 들어가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와 베드로서와 요한 서간을 따라 ‘고난과 희망’이라는 주제로 십자가의 길을 그려보았습니다.

첫 주간은 ‘히브리서의 희망과 생명’ 십자가의 길을,
둘째 주간은 ‘야고보서의 말씀 실행’ 십자가의 길을,
셋째 주간은 ‘베드로 전서의 고난과 영광’ 십자가의 길을,
넷째 주간은 ‘베드로 후서의 구원의 기회’ 십자가의 길을,
다섯째 주간은 ‘요한 일서의 약속’ 십자가의 길을 썼습니다.

2021년 교구 사제 피정중에
수색 예수성심 성당 주임사제
심홍보 베드로 신부

십자가의 길

✠ 주 예수님,

- ◎ 저희를 위하여 온갖 수난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목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나이다.
저희에게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수난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시어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성직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죄인이 회개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 1처 예수님께서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목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제 2처 예수님께서서 십자가 지심을 목상합시다.

제 3처 예수님께서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목상합시다.

제 4처 예수님께서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목상합시다.

제 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목상합시다.

제 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목상합시다.

제 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목상합시다.

제 8처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목상합시다.

제 9처 예수님께서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목상합시다.

제10처 예수님께서서 옷 벗김 당하심을 목상합시다.

제11처 예수님께서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목상합시다.

제12처 예수님께서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목상합시다.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목상합시다.

제14처 예수님께서서 무덤에 묻히심을 목상합시다.

잠깐 목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십자가의 길

- 가톨릭 기도서 -

✚ 주 예수님,

- ◎ 저희를 위하여 온갖 수난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나이다.
저희에게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수난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시어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성직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죄인이 회개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제1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처 예수님께서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저희를 위하여

아무런 죄도 없이 극심한 모욕과 사형선고를 받으셨으니
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영원한 벌에서
저희를 구원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2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2처 예수님께서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저희를 사랑하신 까닭에
이 무거운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셨으니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십자가를
기꺼이 지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3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3처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무거운 십자가에 눌러 넘어지시는
고통과 모욕을 당하셨으니
저희가 언제나 주님을 변함없이 섬기며
죄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4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4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님,

괴로운 십자가의 길에서 서로 만나시어
사무치는 아픔을 겪으셨으니
저희 마음에 사랑을 복돋아 주시어
주님과 성모님을 사랑하는 데에
장애 되는 모든 것을 물리치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5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시몬이 주님을 도와 십자가를 졌으니
저희도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십자가를
날마다 기꺼이 지고 가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6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나쁜 무리가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님을 업신여기며 모욕하였듯이
저희도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더럽히는 것이오니
통회의 눈물로
주님의 얼굴을 씻어드리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7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저희를 위하여 두 번째 넘어지시는 고욕을 당하셨으니
주님을 한결같이 섬기지 못하고
다시 죄에 떨어져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다시는 세속과 육신의 간교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8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8처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저희 죄로 상처를 받으시고
온몸이 헤어지셨으니
저희에게 풍부한 은총을 내리시어

지난날에 지은 모든 죄를 뉘우치며
주님의 품을 찾아 들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9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무거운 저희 죄에 눌리시어

세 번이나 무참히 넘어지셨으니

그 수난의 공로를 저희에게 나누어 주시어

저희가 이미 지은 죄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0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0처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병사들이 난폭하게 주님의 옷을 벗길 때에

살이 묻어나는 극도의 고통을 당하셨으며

죄수로 군중 앞에 서시는 모욕을 당하셨으니

저희가 모든 죄를 벗어버리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1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박혀 달리셨으니

저희도 주님과 같이

몸과 마음을 희생제물로 봉헌하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으니

저희도 십자가에 못박혀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구세주 예수님,

혹시라도 영원히 주님을 떠날 불행이 저희에게 닥칠양이면

차라리 지금 주님과 함께 죽는 행복을 내려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목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주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품에 안으신

성모님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도 성모님 품안에서

효성스러운 자녀로 살다가

마침내 그 품안에서 죽게 하소서.

잠깐 목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4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목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돌무덤에 묻히신 구세주 예수님,

저희가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언제나 깨끗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사랑의 성체를 받아 모시게 하소서.

잠깐 목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

(히브 10,23)

- 히브리서의 희망과 생명 십자가의 길 -

✠ 주 예수님,

- ◎ 저희를 위하여 온갖 수난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목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나이다. 저희에게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수난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시어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성직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죄인이 회개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제1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처 예수님께서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목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히브 1,1-2)

주 하느님은 말로 가르치시면 될 줄 아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아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주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주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구원의 영도자를 고난으로

완전하게 만드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비로울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충실한 대사제가 되시어,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히브 2,10.17)

주 예수님은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 가득한 구원의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실제로 그렇게 사랑하고 계심을 기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욕심만을 채울 뿐

주 예수님을 따라 회개하고 새로 나서

주 하느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순종과 반역의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3처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 계신 하느님을 저버리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료가 된 사람들입니다.

처음의 결심을 끝까지 굳건히 지니는 한 그렇습니다.”(히브 3,12.14)
예수님은 백성들을 열성적으로 사랑하시고, 헌신적으로 사랑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 사랑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의 거부반응에 지치고 쓰러지십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4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여좌로 나아갑시다.”(히브 4,15-16)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똑같은 인간 조건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악의 유혹도 많이 받으셨지만,

악마와 동조하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유혹에 시달리는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안쓰럽고 측은히 여기시어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우리가 악을 쳐 이기고 극복하도록 힘이 되어 주십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5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

하느님에게서 멜키체덱과 같은 대사제로 임명되었습니다.”(히브 5,8-10)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온갖 유혹과 헐박과 죽을 고비를 겪으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의지만으로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느님께 의지하여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견딜 수도 하느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다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아버지께 의탁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상에서 대신 죽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사람을 구하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인

예수님의 사명이 완성된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6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성숙한 경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희망이 실현되도록 끝까지

같은 열성을 보여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히브 6,3.11)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부족하고 나약하여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할 뿐이지

예수님이 싫고 미워서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듯 선하지만 너무나도 약한 인간의 본성이

오히려 인간을 내치지 못하게 하고 더 사랑하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보다도 우리의 정성을 어여뻐 보아주십니다.

주님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7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늘 살아 계시어

그들을 위하여 빌어 주십니다.”(히브 7,25)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를 더 무겁게 합니다.
우리 짐을 대신 짊어지시면서도, 우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품 안에서 쉬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구하는 십자가상 희생제물은 주님의 몫이요
우리는 주님 사랑으로 죄악에서 해방되는 몫입니다.
우리의 몫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 사랑의 십자가 길에 동참할 때
주님 십자가의 짐이 가벼워지고, 보람을 느끼시며,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실 수 있음을 믿고 기뻐합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8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8처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시다.**
-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더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더 나은 약속을 바탕으로 세워진

더 나은 계약의 중개자이시기 때문입니다.”(히브 8,6)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아픔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모습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임으로써
회개하여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걱정만 하십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9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새 계약의 중개자이십니다.

첫째 계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속량하시려고 그분께서 돌아가시어,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약속된

영원한 상속 재산을 받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히브 9,15)

주님은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서 새로 태어나

힘차게 새 생활을 시작하기를 바라십니다.

새 생활이 힘겨워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서는 함께 넘어지시고 아파하시면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넘어지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0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0처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고대하는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죄와는 상관없이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입니다.”(히브 9,28)

예수님은 가릴 것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재물에 양다리를 걸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겸비해서는 안 될

재물의 축재를 오히려 청하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초라해지고 더 나약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1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모든 사제는 날마다 서서

같은 제물을 거듭 바치며 직무를 수행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한 번 제물을 바치시고 나서,

영구히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히브 10,11-12)

예수님은 결정적인 한 수를 두십니다.

우리를 구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생명을 바치는 것임을.

예수님은 생명을 바쳐 우리가 한눈을 팔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것임을 드러내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시는

주님을 두고 우리가 다른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2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악에 물든 양심을 벗고 깨끗해졌으며,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말끔히 씻겨졌습니다.”(히브 10,22)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추구하셨던 바를 이루십니다.
아버지 하느님을 향한 굳은 믿음과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희망에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표현으로
우리를 위해 주님 생명을 바치십니다.
주님께서 나눠주시는 생명에 힘입어
악과 헤어지고 악에서 벗어나 진정 새로워지겠나이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3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목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굳게 간직합니다.

약속해 주신 분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

약속된 것을 얻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

믿어서 생명을 얻을 사람입니다.”(히브 10,23.36.39)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의 희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가

대대로 애써 실현해 온 하느님 나라가

조금씩 조금씩 다가옴을 느낍니다.

하느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열정과

헌신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재촉합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목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4처 예수님께서서 무덤에 묻히심을 목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견디어 내시어,

하느님의 여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히브 12,2)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하신 주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헌신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 뒤를 따라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
아버지 하느님께 다다르게 하소서.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5처 제대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5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영원한 계약의 피로, 양들의 위대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끌어올리신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시어

여러분이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을

우리에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히브 13,20-21)

예수님의 아버지이자 우리의 인자하신 주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시고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눠준 생명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이어가려는

우리를 어여뵈 보시어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정해주시고

주 예수님과 함께 우리 구원의 하느님 나라를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시어 우리의 주인이 되신 주님,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요한 14,2)라고 하시며,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요한 14,3)라고 하셨으니,
주님 생명을 바쳐 구하신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저희를 구하러 어서 빨리 오시옵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

(야고 1,22)

- 야고보서의 말씀 실행 십자가의 길

✠ 주 예수님,

- ◎ 저희를 위하여 온갖 수난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나이다.
저희에게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수난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시어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성직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죄인이 회개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제1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처 예수님께서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야고보는 말합니다.

“갓가지 시련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다시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을 받으면 인내가 생겨납니다.

그 인내가 완전한 효력을 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면에서 모자람 없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야고 1,2-4)

주 하느님께서서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다 퍼주셨지만,

그 사랑에 감사를 표현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인류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더 열심히 살기보다는

지금 당장 더 많이 더 자주 더 좋은 것만을 달라고 요청하며,

그 탐욕을 채워주지 않는 하느님은 필요 없다고 내칩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2처 예수님께서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야고보는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누구든지 지혜가 모자라면 하느님께 청하십시오.

하느님은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베푸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의심하는 일 없이 믿음을 가지고 청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주님께에서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어떠한 길을 걷든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야고 1,5-8)

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베풀어주고 계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하다고 여겨 청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조급해하고 의심하면서

주님 등뒤로 거듭 십자가를 씌워버립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3처 예수님께서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야고보는 말합니다.

“비천한 형제는 자기가 고귀해졌음을 자랑하고,

부자는 자기가 비천해졌음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꽃처럼 스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겁게 내리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저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만 골몰하다가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야고 1,9-11)

주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여겨 이것저것 다 주셨는데도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은총의 선물을 형제들과 나누기는커녕

곁에만 쌓아두고, 모자란다고 더 달라고만 합니다.

우리의 탐욕에 예수님은 지쳐 쓰러져 버리십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4처 예수님께서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야고보는 말합니다.

“유혹을 받을 때에 ‘나는 하느님께 유혹을 받고 있다.’ 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악의 유혹을 받으실 분도 아니시고, 또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꼬임에 넘어가는 바람에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망은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다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야고 1,13-15)

주 하느님께서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의 은총을 선물로 주셨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이 무엇인지 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선물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다른 선물들에 눈이 어두워

자신을 불행하다고 여기며, 한탄하기도 합니다.
주님에게나 본인에게나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이를 아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5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야고보는 말합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옵니다.

빛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변동에 따른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당신의 피조물 가운데 이를테면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야고 1,17-18)

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선물은 무형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유형의 선물을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은사가 하느님의 무한하고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알려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시몬은 로마 군인이 시켜서나마 그 사랑의 십자가 길에 동참합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6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야고보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듣기는 빨리 하되, 말하기는 더디 하고 분노하기도 더디 해야 합니다.

사람의 분노는 하느님의 의로움을 실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그 넘치는 악을 다 벗어 버리고

여러분 안에 심어진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습니다.”(야고 1,19-21)

베로니카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모습을 아파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지 못하고 더 높이 오르지 못해서 아파합니다.

오늘 내 가족과 친지와 벌어지는 일상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어떤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는지,

어떤 말씀이 내게 새 생명의 길을 비춰주시는지.

주님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구원의 길로 나아갑시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7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야고보는 말합니다.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나 완전한 법 곧 자유의 법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머물면,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에 옮겨 실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의 그 실행으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흠 없는 신심은,
어려움을 겪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야고 1,22,25.27)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에 나가거나,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일은 아예 등한시하게 됩니다.
홀로 외로이 십자가를 힘겹게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과 함께 살라고 우리에게 보내준 이들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나와 우리 모두의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것임을 깨달아
다 함께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나가기로 합시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8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8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야고보는 말합니다.

“화려한 옷을 걸친 사람을 쳐다보고서는

‘선생님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저기 서 있으시오.’ 하거나

‘내 발판 밑에 앉으시오.’ 한다면,

여러분은 서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악한 생각을 가진 심판자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야고 2,3-5)

예루살렘 부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모습에 애가 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모습에 마음 아파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정성껏 기도드리는 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실현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사랑을
형제자매들과 나누어 그 사랑에 보답하고
우리를 위해 죽어가시면서까지 이룩하고자 하셨던
사랑의 하느님 나라를 마침내 이루기로 합시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9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야고보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장차 자유의 법에 따라 심판받을 사람으로서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자비를 베풀지 않은 자는 가차 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야고 2,12-13)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고사는 것이 먼저라고 외치며

나 살길만 찾아 앞으로 위로 올라가려고 발버둥 칩니다.

양보도 용서도 없는 욕망의 사다리 탑을 싸움 싸우듯 내치며 올라갑니다.

그 어느 날 그 탑에서 떨어졌을 때 우리는 버림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쳐냈던 사람들의 원망과 비웃음을 한껏 받으면서

한 사람씩 쳐 낼 때마다, 한 사람씩 단죄할 때마다

예수님은 쓰러지시고 맙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0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0처 예수님께서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야고보는 말합니다.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듯이 녹이고 배불리 먹으시오.’ 하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 2,14-17)

세상은 코를 베어 가고, 벗겨 먹는다고 합니다.

그 누군가가 가질 것을 선취하고

그 누구에게 갈 것을 가로채고

그 누군가는 자신도 모르는 새에

나를 위해서 대신 양보 당하고, 희생당합니다.

다 벗겨지고 우리 생애의 민낯이 드러나는 그 날

내 인생을 위해 살아온 치열한 삶이

그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벌이 되었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을지 모릅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1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야고보는 말합니다.

“사람은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의롭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창녀 라합도 심부름꾼들을 맞아들이고

또 그들을 다른 길로 내보냈을 때에 실천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듯 실천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야고 2,24-26)

오늘 우리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이웃과 사랑을 나누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주신 은총을 내가 움켜잡고만 있다면,

이웃과 나누라고 내게 베풀어주신 은총을 내가 가로채는 결과가 될 것이며

그런 선물을 내게 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꼴이 될 것입니다.

내 책임이 아니어도, 내 잘못이 아니어도

내 눈에 띄도록 보내주신 어려운 이웃을 사명 삼아 애써 찾고

주님께서 내려주신 사랑을 나누며

우리 구원을 향한 예수님 십자가의 무게를 가볍게 해드립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야고보는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누가 말을 하면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미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느님과 비슷하게 창조된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야고 3,2.9)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마다 다른 상황과 얽히고설킨 이해관계 안에 휩쓸려 사랑을 제때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때로는 용기가 없어서, 때로는 굳이 하고 싶지 않아서,
 때로는 마치 복수라도 하듯이, 그가 잘 안 되길 바라면서
 사람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보고도 못 본채 지나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때마다 그 사람 안에서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저주받아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3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야고보는 말합니다.

“마음속에 모진 시기와 이기심을 품고 있거든,
 자만하거나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시기와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행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먼저 순수하고,
 그다음으로 평화롭고 관대하고 유순하며,
 자비와 좋은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의로움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이들을 위하여 평화 속에서 심어집니다.”
 (야고 3,14.16-18)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원망, 질시와 저주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서도 사랑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 누군가가 잘못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한쪽으로는 통쾌하면서도,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도 사랑이 죽어버렸음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잘못은 그가 했어도, 책임은 그에게 있어도
그를 미워하고 경원시했던 내 마음에서도 사랑이 죽어버립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허탈한 심정처럼
우리의 죽어버린, 결과적으로 상처 난 사랑의 심장을 허탈하게 바라봅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4처 예수님께서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야고보는 말합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형제를 헐뜯거나 자기 형제를 심판하는 자는 법을 헐뜯고 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

(야고 4,10.11.14)

많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갖은 열의를 다 하지만,
생각처럼 다 이루지 못합니다.

상황과 여건이 맞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의하며 다 받아들일 때가 되고

그 꿈이 펼쳐질 여건과 상황이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공동선을 향한 사회적 공감대와 경제적 기술적 여건이 준비될 때까지
그 꿈을 위해 헌신하고 명을 다한 분들을 기억합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5처 제대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5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목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야고보는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리는 농부를 보십시오.

그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아 곡식이 익을 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힘을 냅니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놓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또 많은 죄를 덮어 줄 것입니다.”(야고 5,7.16.20)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매일 매 순간 주님께 청원 기도가 올라갑니다.

각 지역, 각 나라, 각 민족이 개인별, 계층별, 분야별로

다급하고 간절한 염원들을 앞다투어 청합니다.

그 모든 청원과 염원들이 주 하느님께 도달합니다.

주 하느님께서 세상을 구하고자 하시는 그 큰 사랑의 뜻 안에서

우리의 기도와 정성과 땀방울 어린 노력이 다 합쳐져

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염원들을 이루어 열매를 맺어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모습처럼

우리의 모든 안타까움과 아쉬움과 한스러움을 다 위로해 주시며

우리의 간절한 염원과 갈증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생명을 바쳐 구하신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저희를 구하러 어서 빨리 오시옵소서.

잠깐 목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여러분이 지닌 희망

(1베드 3,15)

- 베드로 전서의 고난과 영광 십자가의 길

✠ 주 예수님,

- ◎ 저희를 위하여 온갖 수난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나이다.
저희에게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수난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시어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성직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죄인이 회개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제1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처 예수님께서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고,
또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 재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상속 재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1베드 1,3-4)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고발로 로마인에게서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서 사랑으로 백성에게 베푸신 모든 선물이
예수님 사형의 올가미가 되어 예수님의 목을 짓누릅니다.
그러나 죽음이 죽음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서는
내일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오늘을 묵묵히 받아들이십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2처 예수님께서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1베드 1,8)

주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지만,

내일 다시 생명을 얻어, 부활의 영광을 안으실 것이기에

비록 오늘이 고통스러우셔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새로운 삶의 희망을 안고서, 오늘의 고통을 기꺼이 받으십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3처 예수님께서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영혼이 깨끗해져

진실한 형제애를 실천하게 되었으니,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한결같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썩어 없어지는 씨앗이 아니라 썩어 없어지지 않는 씨앗,

곧 살아 계시며 영원히 머물러 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 태어났습니다.”(1베드 1,22-23)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의 길만 같고, 실패자의 냇두리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미래의 하느님 나라에서야 가능할 것만 같은 복음의 길이

우리를 머뭇거리게 합니다.

나만 고지식한 것 같고, 나만 믿지는 것 같은 위기감과 보상심리가

나를 약하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4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살아 있는 돌이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는 선택된 값진 돌이십니다.

여러분도 살아 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에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1베드 2,4-5)

예수님의 그 외롭고 힘겨운 길을 어머니만이 아십니다.

버릴 수도 그만둘 수도 없는 주님의 사명을

우리 교회가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를 주님 세상 구원의 도구로 쓰십시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5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베드로는 말합니다.

“불의하게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느님을 생각하는 양심 때문에 그 괴로움을 참아 내면 그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잘못을 저질러 매를 맞을 때에는,

견디어 낸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명예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는데도 겪게 되는 고난을 견디어 내면,

그것은 하느님에게서 받는 은총입니다.”(1베드 2,19-20)

어떨 때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저주에 동참하지 않는 것만도

어떨 때는 적극적으로 막아주고 보호해주지 못해도

비록 멀리서라도 그를 위해 기도를 봉헌하며

가슴을 움켜쥔 채로 마음으로 지지를 보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일 수 있지만, 그래도 힘을 보탭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6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 나무에 달리시어,
죄에서는 죽은 우리가 의로움을 위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상처로 여러분은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었지만,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이시며 보호자이신 그분께 돌아왔습니다.”

(1베드 2,24-25)

예수님의 상처로 우리가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갖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을 향하여……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7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베드로는 말합니다.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들도

아내인 여러분의 말 없는 처신으로 감화를 받게 하십시오.

온유하고 정숙한 정신과 같이 썩지 않는 것으로,

마음속에 감추어진 자신을 치장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느님 앞에서 귀중한 것입니다.”(1베드 3,1.4)

똑같은 하루 24시간을 살면서도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챙겨주시면서도

어머니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어머니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아내이기에 그렇습니다.
몸은 쓰러지지만,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 어머니와 아내에게 새겨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끕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8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8처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시다.**
-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생각을 같이하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처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며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을 상속받게 하려는 것입니다.”(1베드 3,8-9)

함께 산다는 것이, 함께한다는 것이 때로는

떨어져 남처럼 지내는 정작 모르는 이보다 더 힘듭니다.

차라리 멀리 있는 전혀 모르는 남은 사랑하는데,

눈에 보이는 내 배우자, 내 가족은 왜 그렇게 거북한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내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지 않아도,

적당히 할 때만 하고, 할만큼만 하고 그쳐도 되기 때문인가 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던져 우리를 구해주신 주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9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베드로는 말합니다.

“의로움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 하여도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히 모십시오.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십시오.”(1베드 3,14-15)

이 길을 나 홀로 걷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을 걷다가 잘못되면, 나 혼자 버려지는 것은 아닐까?

나 혼자 뒤쳐지는 것은 아닐까? 고민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느님께 대한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셨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우리를 지켜 주고 계시며

우리가 무사히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계심을

느끼며 주님과 함께 주님 사랑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렵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0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0처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도 죄 때문에 단 한 번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느님께 이끌어 주시려고,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으로는 살해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1베드 3,18)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밖에 감추실 것이 없으시기에

옷이 다 벗겨지셔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을 다 이루는 일밖에 없으시기에

부끄러움도 없이, 실망도 없이, 그 길을 굳건하게 걸어 나가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사라지는 아픔을 겪으시더라도

새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리라는

희망으로 십자가상의 치욕을 견뎌내십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1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베드로는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한결같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 줍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잘 대접하십시오.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훌륭한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1베드 4,8-10)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정작 당하고 겪으니 힘겹습니다.

아프디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을 넘어 절망스러운 순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느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신앙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용서해주시고 구해주시라고……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2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에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도 여러분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영광의 성령 곧 하느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1베드 4,12-14)

드디어 예수님께서 지상 사명을 다 이루십니다.
외견적으로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처참하게 죽어 없어지는 결말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는 이들의 마음은 찢어지지만
예수님은 사명을 다 이루고 인류를 구하셨다는 마음으로 흥에 겨워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고난은 예수님 영광의 첫걸음이니 말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도 주님 수난의 신비에 참여시켜 주소서.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목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하느님의 양 떼를 잘 치십시오.

그들을 돌보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진해서 하십시오.

부정한 이익을 탐내서 하지 말고 열성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에서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 떼의 모범이 되십시오.”(1베드 5,2-3)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는 제자들의 마음은 실망과 좌절에 빠집니다.

시신을 부둥켜안고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이 울부짖습니다.

슬픔에 잠긴 손이 맥없이 움직입니다.

사명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시신을 생전에 이르신 대로

뒤에 남은 어머니와 제자들이 마감합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목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4처 예수님께서서 무덤에 묻히심을 목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느님의 강한 손 아래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그분께 내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1베드 5,6-7)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를 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는
신앙의 신비를 일깨우시듯 예수님께서서는 무덤에 묻히십니다.
겉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다 끝난 것만 같은
칠후 같은 어둠 속에서 구원의 서광이 비쳐옵니다.
원죄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죽은 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수천 년을 기다려온 구원의 신비가 순차적으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5처 제대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5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굳건히 하여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도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시 고난을 겪고 나면, 모든 은총의 하느님께서,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여러분을 불러 주신 그분께서 몸소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며 든든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권능은 영원합니다. 아멘.”(1베드 5,9-11)

하루도 천년 같고, 천년도 하루 같은 아버지 하느님께서
죄인들이 울부짖던 통회의 눈물방울을 수천 년 동안 모으고 모으며 기다리시다가
아드님의 희생 제사로 구원의 역사를 열기 시작하십니다.

어릴 때부터 빨리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투정을 부리며 바쳐왔던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부활로 마침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느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주 성령님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이끄소서. 아멘.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모두 회개하기를

(2베드 3,9)

- 베드로 후서의 구원의 기회 십자가의 길

✠ 주 예수님,

- ◎ 저희를 위하여 온갖 수난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나이다.
저희에게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수난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시어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성직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죄인이 회개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제1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처 예수님께서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부르신 분을 알게 해 주심으로써, 당신이 지니신 하느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신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영광과 능력으로 귀중하고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어, 여러분이 그 약속 덕분에, 욕망으로 이 세상에 빚어진 멸망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2베드 1,3-4)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사형 선고를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보여 주십니다.

나를 채우기보다는 나를 내어 주는
그럼으로써 오히려 온 세상을 얻는
신앙의 신비를 비춰주십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2처 예수님께서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앎을 더하며,
앎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신심을,
신심에 형제애를, 형제애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2베드 1,5-8)

예수님으로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신데도
십자가를 짊어지신다고 해서, 예수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십니다.

사랑은 그런 것인가 봅니다.

아무런 이유도, 아무런 혜택도 없는

내어 줌의 삶을 선뜻 내딛는 그런 삶이 사랑인가 봅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3처 예수님께서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소명과 선택이 굳건해지도록 애쓰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추게 될 것입니다.”(2베드 1,10-11)

내어 주는 삶이라고 해서 평탄대로의 길은 아닙니다.

그 삶의 가치를 알고 따르는 이들이 아닌 다음에야

누가 반기겠으며 누가 거들겠습니까?

실제로 또 그 내어 주는 삶은

쉽게 저절로 흘러가는 삶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이기에

그리고 그 길만이 우리 구원의 길임을 알기에

우리도 따라나섭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4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 줄 때,
교묘하게 꾸며 낸 신화를 따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위대함을 목격한 자로서 그리한 것입니다.

그분은 정녕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영예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존귀한 영광의 하느님에게서, “이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이,

내 마음에 드는 이다.” 하는 소리가 그분께 들려왔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도 그 거룩한 산에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하늘에서 들려온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2베드 1,16-18)

가끔 신기루처럼, 쇼처럼, 마술처럼, 드라마처럼

신기하게 재현되고 해결되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허상이건만, 그래도, 아마도 우리 마음이 선하고,

주 하느님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 베푸시는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각인되어

우리의 기억 속에 사무치도록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사랑의 기적을 기대하고 꿈꾸나 봅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5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밝아 오고 샨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불빛을 바라보듯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언은 결코 인간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하느님에게서 받아 전한 것입니다.”(2베드 1,19.21)

어렵고 힘겹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숙제처럼, 책임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내어 주어야 한다는 부담감마저 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신비에로의 초대임을 왜 몰랐을까 싶습니다.

내어 주어야만 하는 부담이 아니라

내어 줄 수 있는 기회이기를 다시 맞아봅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6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에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을 가져오는 이단을 끌어들이고, 심지어 자기들을

속량해 주신 주님을 부인하면서 파멸을 재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들의 방탕한 행실을 본받아,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모욕을 받을 것입니다.”(2베드 2,1-2)

가끔 기도 속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온한 기도 안에 잠겨서

주님의 사랑을 만끽할 때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기도 안에서 현실의 해답을 찾기보다

기도 자체 안에서 오는 평온함에 기대어

현실을 잊으려는 유혹에 갇힐 때도 있습니다.

기도 안에서 주님께서 펼쳐주시는 평온과 행복의 힘으로

가끔은 잊고 싶은 오늘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7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베드로는 말합니다.

“불경한 자들의 세상을 홍수로 덮으실 때, 그 옛 세상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의로움의 선포자 노아는 다른 일곱 사람과 함께 지켜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두 고을은 멸망하도록 단죄하시고 잿더미로 만드시어, 불경한 자들에게 내릴 벌의 본보기로 세우셨습니다.”(2베드 2,5-6)

내어 주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주어도 주어도 끝이 없을 것 같고,

제정신을 못 차리고 천연덕스럽게 살아가는 그의 모습에

내가 주는 것이 사치스럽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다는

불편하고 부당한 심판을 퍼붓습니다.

그래도 내 맘은 편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관심을 기울이고 공감하고 배려하며

함께하는 것이기에 그런가 봅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8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8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베드로는 말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생활로 고통을 겪던 의로운 롯은 구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에 살면서 무도한 행실들을 보고 듣느라고

그 의로운 영혼이 날마다 괴로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신심 깊은 이들을 시련에서 구하시고,
불의한 자들을 벌하시어 심판 날까지 가두어 두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2베드 2,7-9)

걱정도 계획도 없이 느슨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안쓰러우면서도
이렇다 하게 적절히 함께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으로 괴로워합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또 쓰러지는데 하고 염려하면서도
나와 다른 그의 생애가 그를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더 옳아매는 것만 같아
가서 뜯어말리기도 어렵고, 동물처럼 묶어 놓을 수도 없고
애만 타고 발만 동동 구릅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은 이 현실을 헤아려주소서.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9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들은 실없이 큰소리치면서,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갓 빠져나온 이들을 육체의 방탕한 욕망으로 유혹합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신들은 멸망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굴복을 당한 사람은 굴복시킨 쪽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2베드 2,18-19)

“이번 한 번만 더 하고, 다시는 안 할게!”

“여기까지만 하고, 더는 안 할게!”

끊지 못하고 떼어내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인사 정리에
혹여라도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에
그나마 이것마저 없으면 내게 무엇이 남을까 하는 미련 때문에
또다시 자의 반 타의 반 끌려가듯 물들어가는 죄악의 굴레에서
우리 대신 넘어지고 쓰러져주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0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0처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들은 해악을 저지른 대가로 해악을 입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낮의 술잔치를 기쁨으로 삼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즐기는 너절하고 지저분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눈은 간음할 여자만 찾고 죄에 물리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확고하지 못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마음은 탐욕에 젖어 있는 그들, 저주받은 자들입니다.”(2베드 2,13-14)

세상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위한 사람은 없는가 봅니다.

더군다나 내가 마음으로 의지할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 예수님뿐입니다.

그나마 예수님은 우리 현세적 물질적 안녕을 주실 담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옷이 다 벗겨진 채 헐벗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탐욕과 질시와 원망과 저주로 그야말로 까발려지십니다.

우리의 탐욕마저 받아주실 수 있는 여력이 없어 보입니다.

맨몸으로 까발려진 예수님께 더 이상 무엇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십자가의 무게와 십자가상에 매달린 못의 상처 자국이 무색하게

오늘도 온 세상에서 청하는 갖가지 염원들이 그분을 무겁고 힘겹게 끌어당깁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1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앎으로써
이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난 그 사람들이 그것에 다시 말려들어
굴복을 당하게 되면, 그들의 끝은 처음보다 더 나빠집니다.
의로움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하였던 편이 나을 것입니다.”(2베드 2,20-21)

성당에 와서 처음 교리를 받을 때는

정기적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일깨워주니 감흥이 돋았습니다.

세례의 기쁨도 잠깐, 한동안 무미건조한 듯한 미사참례를 계속하다가
더 깊고 찢힌 감동이 없는 듯하여 시들해졌고

지속해서 유입되는 신앙의 지식이나 새롭고 짜릿한 체험이 없자
그만 별것 아닌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당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인 생활을 하게 되었고,
세례 때,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한 내 결심은 온데간데없어져,
차라리 안 나온 것만 못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차라리 안 나오면서 기대라도 하던 때보다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2베드 3,8-9)

‘왜 부모는 자식을 잃어버리면 찾아다닐까?’

‘그냥 잊어버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죄악으로 죽어 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님의 희생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하려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느님의 그 큰 사랑을 아시는 주 예수님께서서

오늘 아버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람들의 원망과 저주를 한 몸에 받고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대신 돌아가십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우리 짓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내주시는

주 예수님께 송구스러우면서도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베드로는 말합니다.

“거룩하고 신심 깊은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언약에 따라, 의로움이 깃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2베드 3,11-13)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신 주 예수님,
마침내 예수님의 생명마저도 우리 짓값으로 대신 내어 주신 주 예수님.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생의 의미를 살핍니다.
그동안 나와 내 가족의 안위와 복락을 위해 애썼던 순간들을 되돌아보며
주 하느님께서 인류 공동체로 맺어주신 형제자매들을 바라봅니다.
그런 면에서 더욱더 회개가 비단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라
내어 주는 사랑의 삶으로 첫발을 내딛는 것임을 깨우칩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4처 예수님께서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 없고 흠 없는 사람으로 평화로이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구원의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2베드 3,14-15)

집 나간 아들이 이제나저제나 돌아오기를 문간밖에 서서 기다리는 부모님처럼
아버지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되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죄악으로 치밀어 오르는 화를 내리누르며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며 걱정하십니다.

죽지만 않고 살아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 하느님 대전에

나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소수의 안녕만을 생각하던 내가

아버지 하느님께서 한 가족으로 엮어주신 인류와 자연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평화로운 공존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찾으며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무지하고 철없던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느님의 정을 되새깁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5처 제대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5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베드로는 말합니다.

제15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무법한 자들의 오류에 휩쓸려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은총과

그분에 대한 앎을 더욱 키워 나아가십시오.

이제와 영원히 그분께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2베드 3,17-18)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우리 인간과 지구 공동체를 향한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에 눈물겹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배려하시며 사랑하시는지를

갖가지 다양한 방법과 방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운 사랑으로 무지하고 고집 센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지켜주시며

거듭 용서해주시고 채워주시며 섭리와 안배로 우리를 이끌어 오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느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주 성령님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이끄소서. 아멘.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영원한 생명

(1요한 2,25)

- 요한 일서의 약속 십자가의 길

✠ 주 예수님,

- ◎ 저희를 위하여 온갖 수난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나이다.
저희에게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수난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시어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성직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죄인이 회개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제1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처 예수님께서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처음부터 있어 온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 눈으로 본 것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 본 것,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보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선포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요한 1,1-2)

살아 숨 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 있는 것 같지 않고
살맛이 없는 듯한 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뭐하러 사는지? 왜 사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되는 하루를 지속할 뿐입니다.
인격적이고 의미를 지닌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일상에서 생각도 의식도 만족도 없이 죽은 듯이 살아온
지난날에서 문득 멈춰 하늘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친교를 나누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교는 아버지와 또 그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이 글을 씁니다.”(1요한 1,3-4)

우리가 삶의 지표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살면서 터득하여 우리 삶의 전부인양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가치관과 처세가 주 예수님의 복음과 교회의 신심일까?

아니면 우리나라 문화와 사회의 관습과 상식에서 오는 것일까?

우리가 의지하고 친교를 맺는 문화의 한 가운데에

주 예수님과 교회는 어디에, 어느 정도 자리하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편안한 가운데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도.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3처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그분께서 빛 속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친교를 나누게 되고,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줍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1요한 1,7.9-10)
우리가 복음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살고 있다고 자신하면
세상과의 긴장과 갈등 속에서 피로하고 귀찮을지도 모릅니다.
거꾸로 세상의 문화와 사회의 관습과 상식에 맞춰 살고 있다면
우리는 큰 문제 없이 평이한 삶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적인 평화와 기쁨은 어디에 얼마만큼 있을까요?
세상의 문화와 사회의 관습과 상식이 복음 말씀과 일치할 때면
우리는 편안하고 기쁘게 지내지만,
반대로 그 차이가 긴장과 갈등 속에 있다면,
우리는 어느 길을 따라 걸어야 할지 고민과 방향 속에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과 형제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로 돌출된다면, 우리는 많이 난감하고 괴로울지 모릅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4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1요한 2,1-2)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 또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사회의 문화와 사회의 통념과는 차이가 나는 행위를 선택해야 할 때
 우리는 외로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어느 누구의 외적인 인정이나 칭찬도 받지 못한 채
 예수님께서서 우리 가슴 속에 채워주시는 평화만으로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물론 소수의 동반자와 신앙과 복음에 의식 있는 이들의 내적인 지지와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위로해주시는 어머님께서 계시겠지요.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5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그분을 안다.’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고,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1요한 2,3-4)

우리가 주 예수님의 계명인 사랑을 나누게 되면 사람들은 물을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고, ‘혹시, 선거에 나가느냐?’고.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사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실현하며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아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받은 그 사랑을 형제자매들과 나누면서
이 땅에 하느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일 뿐
그 다른 어느 무엇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6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는 참으로 하느님 사랑이 완성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분 안에 머무른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1요한 2,5-6)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하며,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전까지는 공허하고 불안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과 노력을 마침내 실현하게 되는 그 어느 날,

사랑의 첫발을 내딛기 시작할 때

우리는 참으로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7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빛 속에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속에 머무르고,
그에게는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1요한 2,9-11)

주는 것 없이 밋고 웬지 거북하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미워하고 피하는 것도 아니건만

자연스럽다는 표현이 우스울 정도로 회피하는 눈길은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하니까 잊으니까,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행동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착각하며 사랑을 에둘러 돌아깁니다.

어느새 미움이 마음에 파고들어 사랑을 갉아먹고 있어서

자신 안에서 사랑이 부서지고 허물어지는 줄도 모르고

악에게 마음을 소리소문없이 은근슬쩍 빼앗겨, 눈이 희미하게 멀고

귀가 안 좋은 소식 쪽으로 가늘어지며, 가슴이 돌처럼 굳어깁니다.

생명이 시들어지고, 영이 죽어깁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8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8처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도 또 세상 안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 사랑이 없습니다.

육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세상은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1요한 2,15-17)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명품 가방, 명품 신발, 대박 코인 등으로 몰려듭니다.

왠지 내가 안 사면, 내 아이에게 안 사주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주류사회에서 밀어 내쳐지는 기분이 들어 악착같이 짝퉁이라도 간직하려고 합니다.

유행은 한 철 지나가 버리는 것인데도, 거기에 목숨줄을 겁니다.

인격과 존재의 의미와 영이 외적 재물의 소유 여부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건만

썩어 없어질 양식을 구하듯, 신기루 같은 허상에 자신을 내맡기려 합니다.

누가 우리를 살려주고, 누가 우리를 존중해 주며, 누가 우리를 귀하게 여겨줍니까?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빛나게 합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9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의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갔지만 우리에게 속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1요한 2,18-20)

주일 미사 한 번 빠져도 죽지 않습니다.

아침 저녁기도 한 번 빠졌다고 벌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차,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으로 여기고
 주 예수님의 구원 은총 속에 살고 있음을 까맣게 잊고
 영혼이 점차 허기져가고, 목말라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마치 아버지 하느님의 은총을 시험이라도 하듯이
 위험천만한 죄악의 유혹과 욕망의 허망한 사다리 탑에 매달립니다.
 탐욕으로 공허하고 타오르는 갈증에 휩싸여 속수무책으로 끌려들어 갑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0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10처 예수님께서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시다.**
-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면,

여러분도 아드님과 아버지 안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1요한 2,24-25)

우리가 언제 한번 편안했던가?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언제 한번 행복했던가? 어릴 때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살면서?

위험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고, 뭘 모르던 때에 느꼈던 감정 말고는

어른이 되어 사회에 나와서 진정 평안하고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을까

찾아보고 세어보자면, 열 손가락에 손톱을 정도밖에 안 될지 모릅니다.

그에 반하여, 성당에 나와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미사를 드리며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미의 노래를 올려드리면서?

주 예수님이신 성체성사를 모시고 고요히 잠기었을 때?

군더더기 없는 순수한 신앙과 탐욕과 죄악에 휩쓸리지 않는 맑은 영혼으로

성령께 의탁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나이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1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자녀 여러분, 그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래야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분의 재림 때에 그분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의로우신 분이심을 깨달으면, 의로운 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1요한 2,28-29)

주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실현하여 생기를 얻는 것이며,

주님 말씀을 실현함으로써 오는 잔잔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며,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사랑을 어려운 형제자매들과 나누어

우리 가운데 주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느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며,

우리를 부르시는 주 예수님의 품으로 기꺼이 달려들어

주님 상처를 어루만지며 십자가의 무게를 줄여드리는 것입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이러한 희망을 두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신도 순결하게 합니다.”(1요한 3,2-3)

우리를 세상에 내신 분도 주 하느님이시고,

우리를 마지막 날 온전히 구원하실 분도 주 하느님이시니,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시며 인도하고 계신

주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세상이 부르는 탐욕과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주님 사랑으로 회개하여 새로 나서

주님께서 펼쳐주시는 은총과 생명의 길로 나아가나이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여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음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1요한 3,11.13-14)

주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사랑을 불태우시고

급기야는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죄값으로 자신을 바치라고 하신

아버지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사명을 다 수행하시고 시신으로 내려오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에게서 이 땅에서 수행하도록 받은 사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는 새 계명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을 사랑하여 자신들의 말을 들으라고 하지만

우리는 주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들이기에

지금 여기서, 주님의 말씀대로 차별과 구분 없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마지막 날 온전히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이미 나눠 받고 있나이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4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목숨을 내놓으신 그 사실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마음을 달아 버리면,

하느님 사랑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1요한 3,16-18)

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겠습니까?

혹시 부모님이라면 그러겠노라고 나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로마 5,8) 라는 말처럼 주님 사랑이 가슴 깊이 사무치도록 절절히 스며듭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생명마저 아낌없이 내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 거룩한 사랑에 보답하는 의미로, 형제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살라고 맺어주신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은총을 서로 나누며 주님께 나아가나이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5처 제대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5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청하는 것은 다 그분에게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이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고 있습니다.”(1요한 3,22-24)

우리가 주님께 청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과

이 땅에 살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들을 청합니다.

주님을 향한 굳은 믿음과 형제자매들을 향한 신뢰와 사랑

현세와 물질에서 해방되고 탐욕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펼쳐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향한 회개와 새로 남입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해 주실 성령을 보내 주심을 믿나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루카 11,13)

주님 생명을 바쳐 구하신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저희를 구하러 어서 빨리 오시옵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